



세계기도일을 준비하고 있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의 임원들. 홍보부장 홍수지 권사, 증경총회장 정의희 권사, 회장 이린애 장로, 감사 현하숙 권사, 증경회장 석승연 권사.



한인 청년을 중심으로 8개 신학대, 5개 단체가 연합해 매달 중보기도하고 있다.

세계 기독교여성들 바하마 위해 기도

3월 6일 세계기도일 행사, LA는 7일에

매년 3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세계 교회 여성들이 교파와 인종을 초월해 교회 일치와 평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기도일이다.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올해로 128주년을 맞이하며 180여 개국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은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

고 있다.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 기도문은 바하마의 기독교 여성들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요13:12)”라는 주제 아래 작성했다. LA 지역에서는 남가주지부 주최로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 170 Bimini Pl. Los Angeles, CA90004)에서 열린다. 문의) 남가주지부 회장 이린애 장로, 909-967-4003 김준형 기자

“선교, 미국, 한국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

8개 신학대, 5개 단체 연합해 매달 중보기도

남가주 지역 한인 신학생들이 세계선교와 미국·한국, 남북통일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 아래 매달 기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에는 풀러신학교, 골든게이트신학교, 바이올라대학교 탈봇신대학원, 아주사대학교 신학대학원,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장신대, 그레이스미션대, 월드미션대 등 다양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신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 한인대학생선교회(KCCC), JAMA, CMF미니스트리, 파이어크루세이드, 미스바철야기도팀 등의 단체가 함께 한다. 기도회의 공식 명칭은 남가주 미스바연합기도회다.

을 위해, 아주사대학교 신학생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이어 KCCC와 파이어크루세이드가 함께 찬양을 인도한 후 또 기도가 계속됐다. 탈봇신학대학원생들은 미국, 미주장신대 학생들은 한국, 그레이스미션대는 남가주, 골든게이트신학교는 교회와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했다. JAMA와 CMF는 청년과 신학생을 위해, 가정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전체 기도집회는 그룹별 기도와 환우를 위한 특별 기도로 이어졌고 마지막은 헌신자들을 위한 결단의

시간과 파송으로 마무리됐다. 한인 신학생들이 그들 간의 신학적 차이를 뛰어 넘고 또 다양한 단체와 연합해 매달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주최측은 “이 기도회는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라면서 “지금은 자신과 이 땅의 가정,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북한자유주간 워싱턴 DC에서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북한자유주간’은 지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등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 촉구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최초로 열렸다. 이후 해마다 4월 마지막 주를 ‘북한자유주간’으로 기념하면서 워싱턴 DC에서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가 열렸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

는 “새로 바뀐 미국 상하원 중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의원들도 있다”며 “미국 의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솔티 대표는 “에드 로이스 의원(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엘리엇트 엔젤 의원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H.R. 757)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제정되고 발효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우 기자



이 기도회에는 신학생들과 함께 각 학교 및 단체의 리더들도 참여했다. JAMA의 강순영 대표와 강영수 목사,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살롬 김 학장 등도 행사에 참여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과 12가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젊은 LA시의원이되어 더 뛰고, 더 만나고, 더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올때도 되었습니다! 젊은 그레이스 해내겠습니다!

선거일: 2015년 3월 3일 기호 번호 **92** 기억하세요!



한인들이 더
 당당하게 나아갈
 권익신장을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목소리를 낼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찾아주세요!



직장인, 사업가,
 대학생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려주세요.



[그레이스 유]

- LA 10지구 시의원 후보
- 3살에 부모님과 함께 LA로 이민
- LA교육구에서 초중고대 및 법대 졸업 변호사 자격취득
- 거주 상원의원 보좌관
-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 아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LA 공립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 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연방의원을 실득해 북한 고아 입양법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미주비전교회 김광신 목사 초청 집회

미주비전교회(이서 담임목사)가 새성전 이전을 기념해 김광신 목사 초청 특별 집회를 개최했다. 김 목사는 2월 22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본문으로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는 설교를 전했다. 그는 "하나님이 키우시고 가꾸시는 참포도나무가 우리다. 열매

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꿈을 꾸고 이루자"고 권면했다. 예배 후에는 제직 세미나를 열고 미주비전교회 중직자들에게 김 목사는 또 한 차례 말씀을 증거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부부간의 사랑과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했다. 문소현 기자

한인기독교상담소 창설 1주년 맞아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기독교상담소(KACC, 김화자 소장)가 창설 1주년을 맞아 3월 17일 오후 6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단한 저녁식사가 마련되고 식사 후에는 정신과 의사인 수잔 정 박사가

"ADHD와 우울증 이해를 위한 두뇌기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장소는 월드미션대학교 6층(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90020)이며 문의는 213-738-6930으로 하면 된다.

얼바인중앙교회에서 치유 콘서트

얼바인중앙교회(김용철 담임목사, 18422 Culver Dr. Irvine, CA92612)에서 오는 2월 28일 오후 7시 30분

찬양사역자 노문환 목사와 함께 하는 치유 콘서트를 연다. 문의) 714-309-7551

중고등학생 위한 무료 과외 클래스

나성서교회(서건오 담임목사,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90019)가 한인타운 내에 거주하는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섬기고자 매주 토요일 U-Step이라는 클래스를 연다. 중학생 반과 고등학생 반이 있으며 오는 3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이 있다. 미술, 음악, 작문, 숙제, 프로젝트 과제, 수학, 역사, 독서, 토론, 필드트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수업 자체는 무료이지만 등록 비용은 20달러다. 수업은 UCLA 재학생 등이 진행한다. 문의) 213-703-9189

"한국교회사를 한 눈에" 특강

한국교회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인수 박사가 오는 3월 3일부터 10개월간 매월 1회씩 "한국 역사와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설한다. 미주장산대 주관으로 매월 첫째 주 혹은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 강좌는 특별히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라구나힐스 커뮤니티 센터(25555

Alicia Parkway Laguna Hills, CA 92653)에서 열린다. 차와 다가가 준비되고 한식으로 저녁도 제공된다. 과정을 모두 수강하면 미주장산대의 수료장도 수여된다. 학교 측은 "이민 사회, 특히 한인 이민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밝혔다. 문의) 213-200-1658, cholo69820@daum.net

축복의 찬양 세미나 The Blessing 개최

3월 1일 남가주살롬교회에서 월드미션대학교와 한국의 빛나라 출판사(대표 손중목)가 홍정표·민인기·윤임상 등 3인의 지휘자를 초청하여 찬양 세미나 "The Blessing(더블레싱)"을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남가주 지역의 교회 찬양대원들 및 지휘자, 반주자들, 일반성도들을 위해 교회음악사역에 꼭 필요한 음악적 훈련과 영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설명했다.

이 세미나는 전문 지휘자 3인의 생생하고 소중한 경험을 통해 주일 예배 현장에서의 사역이 더욱 더 값지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약 20여 년 만에 다시 남가주 지역을 방문하는 홍정표 서울장신대 교수는 "당시 현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을 때 그 소중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잊지 못했다"며 "더 유익한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은혜로운 세미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인기 교수(수원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의 강의도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 한국의 여러 지휘자 세미나에서 인정받는 명강사 중 한 명

인 민 교수는 흥 교수와 함께 지휘자를 위한 강의(찬양대를 위한 음악적 테크닉, '효과적인 찬양연습'), 그리고 찬양대원을 위한 강의('은혜로운 찬양대가 되려면?', '실력 있는 찬양대가 되려면?')를 진행한다. 이는 교회음악사역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필요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핵심적인 강의로 사역의 실용적 측면과 영성적 측면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비춰진다.

이어서 윤임상 월드미션대 교수는 '영성과 실력이 함께하는 교회음악인'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와 함께 윤 교수 본인이 지휘하는 라크마합창단이 빛나라의 합창곡들을

시범 연주로 선보이게 된다.

또한 저녁 식사 이후에 진행되는 남가주 지역 합창단들의 연주회 시간은 많은 교회음악인들에게 배움의 시간과 풍성한 연주의 감동이 함께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음악세미나를 개최한 손중목 대표는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한국에서 교회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이 남가주 교회음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도로 준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세미나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레이스 유 "지역주민과 소통해 맞춤형 해결" 약속

2월 22일 LA 빈티지 할리우드 극장에서 지역언론사 네이버후드 뉴스 주최로 LA 제10지구 시의원 출마자들의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 델라니 스미스 후보 등이 참석했다. 현 10지구 시의원이자 시의원인 허브 웨스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을 거부했다. 네이버후드뉴스는 지난 선거에서도 후보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기에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열기 가운데 10지구를 구성하는 흑인, 아시아인, 라티노 커뮤니티가 이목을 집중했다.



로스앤젤레스 제10지구 시의원 출마자들의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그레이스 유 후보가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좌측은 델라니 스미스 후보.

2시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그레이스 유 후보는 "임기 연장은 곧 권력연장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허브 웨스 의원의 임기 연장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시의원 후보로서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의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LA시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식당은 26가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10지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지속적인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스미스 후보는 최근 네이버후드와의 인터뷰에서 10지구 내의 깨끗한 상하수 공급 문제, 노숙자의 정신치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LA 시의원을 뽑기 위한 예비선거는 오는 3월 3일로 예정돼 있다.

김준형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이름: 김기동

직책: OC협회 회장 / 현 총만교회 담임

경력: 연세대 총, 서울신학교 대학원 총, 일본 아사히야한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본 광고는 강사님들의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미주 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에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선물하는

7인 7색 목양콘서트

"목회자의 자기 정체성과 건강한 이민목회"

분주한 이민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생수를 공급하시며, 오히려 조금은 갈급함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 신개념 목양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민목회를 섬기며 헌신하시는 동안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목회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며, 성령님의 권능을 회복하여 사역에 재 헌신하도록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독일의 목회 현장에서 탁월한 사역으로 신선한 도전을 주고 있는, 영성과 지성을두루 갖춘신 7인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열리는 이번 목양콘서트에 동역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일시: 2015. 3. 12(목) 9:30am ~ 5:3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미러클센터(구성전) (한기홍 목사서무)

1645 West Valencia Drive, Fullerton, CA 92833 (714) 446-6200

참가대상: 모든 이민 목회자(사모), 신학생

등록비: \$30(교재+런치)

※ 단, 먼저 등록하시는 200명은 등록비 전액을 주최측에서 후원합니다.

※ 참가하시는 분 전원에게, 잘 준비된 강의 교재를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강사님들이 집필하신 책과 선물(Tablet PC 5대)을 드립니다.

등록 및 문의

① facebook OC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댓글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② 신현철 목사(분회 총무) 714-321-1891 / 박재만 목사(분회 서기) 213-255-0296

개회예배 / 주제강연

"이 이민목회, 그 황홀한 미션!"

김기동 목사 (OC협회 회장 / 현 총만교회 담임)

-연세대 총, 서울신학교 대학원 총, 일본 아사히야한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em;">목회자는 누구인가</p> <p style="font-size: 0.8em;">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p> <p style="font-size: 0.7em;">-서울신학교 졸업 -국회기도회 지도목사 -독일 보림대학교 신학박사(D.theol.) -국민일보 논설위원 역임</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em;">목회자는 무엇을 하는가</p> <p style="font-size: 0.8em;">한기홍 목사 (중앙성결교회)</p> <p style="font-size: 0.7em;">-서울신학교 졸업 -벤디크트대학교 철학박사 -미국 길버리교회 담임목사 역임 -서울신학교 교수 역임</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em;">목회자의 자기개발</p> <p style="font-size: 0.8em;">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p> <p style="font-size: 0.7em;">-서울신학교 졸업 -아주대학교 졸업 -달빛교회 담임목사 역임 -중앙대학교 명예목사 역임</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em;">건강한 목회 성장하는 교회</p> <p style="font-size: 0.8em;">유관재 목사 (임상성광침례교회)</p> <p style="font-size: 0.7em;">-참예신학교 졸업(TH.B.) -Azusa Pacific Univ.(M.A.M.M.) -Ashland Theological Seminary(D.Min.) -참예교 미려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역임</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em;">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민목회자</p> <p style="font-size: 0.8em;">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p> <p style="font-size: 0.7em;">-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세계한인선교협의회 공동의장 -세계선교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 -그레고리안대학교 이사장</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1em;">디아스포라 한인목회</p> <p style="font-size: 0.8em;">이찬규 목사 (프랭크푸르트 한인교회)</p> <p style="font-size: 0.7em;">-한신대학원 졸업 -독일 마르부르크대학 -프랑크푸르트 대학 -조직신학 기독교윤리학 전공</p>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후원: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OC 목사회, 남가주 청년네트워크

협력: CTS america,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투데이, 기독교일보

이사회: 임원(총무)이서 인경임/이사 박용덕/박학선/신현규/원종호/임종근/윤종원/이종근/정경수/한기홍/홍원우/이성/이병희/이성/김경준/김영수/이종영/이종철/전준호/백영환/최정/김기동/수석부회장 민승/기회부회장 송규/세외부회장 윤복/정성부회장 이효우/역외부회장 이서/신학박사 남상우/교목부회장 심상민/평신도부회장 윤우영/총무 신현철/협동총무 김경선/서기 박재만/회계 서은성/감사 고현홍/신학 오이환/이민목회 김관태/장미 김도영/교육 김익현/여성목회 이선자/선교 정애익/전도 박용덕/영양 김윤식/홍보 이태훈/평신도 신동/문화 유관재/목회자 남상우/전도 사명홍/영양 황두규/회계 최정민/사서재 연두희/이민/평신도 대광라스김/일부서주도전 노정도/교목부서주도전 서은성/교목부서주도전 임종철/평신도 조영수/사무회 태도필/평신도 이동양



민주평통OC-SD와 OC교협이 함께 삼일절을 기념하며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준비 중이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소개했다.

“삼일운동의 완성은 평화통일”

평통-교협 주관으로 평화통일소망기도회 열린다

OC 한인들이 삼일절을 맞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샌디에고협의회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는 3월 1일 오후 4시 30분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갈보리선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평화통일소망기도회를 연다. 이들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 한인 동포 단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 지구상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이 앞당겨지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특강, 3부 음악회 순으로 진행된다. 예배에서는 김기동 교협회장이 설교하고 특강에서는 평화통일연구소 김요한 소장이 특강한다. 김 소장은 현 북한의 상황을 보고한 후, 남한과 더불어 미주 한인들이 어떻게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 강연할 예정이다. 음악회에서는 테너 김일두 등이 남북이 모두 즐겨 부르는 우리 민족의 가곡에 통일의 염원을 담는다. 권석대 평통회장은 “OC교협과 더불어 기도하게 되어 영광이며 기

쁘다. 삼일운동 정신이 통일 정신으로 연결되길 바라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실 것”이라 강조했다. 윤덕근 교협부회장 겸 평통 종교분과위원장은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은 미완성됐으며 이는 평화통일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 삼일운동이 시작이라면 평화통일은 그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도회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OC 지역과 라스베가스 지역이 연합해서 기도한 바 있다. 김준형 기자



미주성결교단의 신학교인 미성대학교가 ABHE의 정회원으로 인가됐다. 사진은 교무처장 윤석길 박사, ABHE 인가위 대표 토니 부찬 박사, 총장 류종길 박사.

미성대학교 ABHE 정회원 인가 ATS 준회원 이후 쾌거

남가주 지역 한인신학교들 학위 인가 잇달아

미성대학교(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구 미주성결대학교)가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의 정회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2008년부터 ABHE 가입을 추진했던 미성대는 2012년 준회원으로 인가됐고 2015년 2월 18일 제68차 연차총회에서 드디어 정회원으로 인가됐다. 미성대는 지난 2014년 6월에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에도 준회원으로 가입된 상태로, 빠르면 2016년 봄 정회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대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BHE의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한인학교 가운데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미드웨스트대학교 정회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한인들이 세운 신학교들이 다양한 학위 인가 기관들로부터 최근 잇달아 인가를 획득하면서 그 학교의 학위가 정식 학위로 인정됨은 물론, 주류 신학교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웨퍼드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는 ATS의 정회원이며 미성대, 미주장신대학교,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등은 준회원 단계에 와 있다. 월드미션대는 ATS 외에 ABHE와 TRACS(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의 정회원 인가도 받으며 3대 신학교육 인가 기관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갖고 있다.

학교 측은 “두 단체의 인가를 기반으로 미주 지역에서 이민목회와 해외선교의 특수사역을 위한 사역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미성대 관계자는 “작년 11월 5명의 ABHE 심사팀이 학교를 찾아와 3일간 철저한 실사를 했다. 이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20여 명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가 회의하고 학교 관계자를 인터뷰한 후, 최종적으로 정회원으로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스미션대는 ATS 준회원인면서 동시에 ABHE와 TRACS의 정회원이고 미주장신대는 ATS 준회원인면서 동시에 ABHE에만 정회원이다. 베데스다대학교는 ABHE와 TRACS로부터만 정회원 자격을 획득한 상태다. 에반겔리아대학교는 TRACS의 정회원 인가만, 국제개혁대학교는 ABHE의 정회원 인가만 갖고 있다. 김준형 기자

류종길 총장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도 북미주의 전통 있는 주류 복음주의 신학교들과 한인들이 설립한 모범적 대학들과

ECA 서부 지역 목사 안수식 거행돼... 한인 6명 안수



ECA가 서부 지역에서 총 13명의 목회자에게 안수했다.

2015년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 서부지역 목사 안수식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새크라멘

토에 위치한 셀러브레이션교회에서 있었다. 총 70여 명의 한인 신청자 중에

7명이 서류심사에 통과하고 6명이 마지막 인터뷰를 통과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국제번호사, 공립학교 교사 등 다양한 이들이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 안수받았으며 출신학교도 달라스신학교, 탈밭신학교, 풀러신학교, 아주사대학교 신대원, 웨스트민스터신학교, ITS 등 다양했다. 한편, 한인을 포함해 총 안수자는 13명이었다. 이 단체의 한인 코디네이터 케니 김 목사는 “지원자의 소명, 타인의 추천, 사역 기간, 신학 교육 등의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안수위원과 구두시험을 거쳐 안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의) 310-502-9999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부: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인사: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11월) - 서부인사팀 T.213.453.6624 (아리랑마켓 인근)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2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www.podental.com

피.오.덴.탈 Dental Plan \$10/월

30 DAY MONEY BACK GUARANTEE

◆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원카드를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오덴탈은 필요한 치료만 정직하게 제공합니다.

★ **코페이: \$35/visit**

- Exam: 무료
- X-ray: 무료
- Scaling: 무료
- 발치(Simple): 무료
- Filling(Amalgam): \$5/surface
- Filling(Rasin Base): \$15/surface
- Deep Cleaning: \$75/quadrant
- 발치(Soft Tissue): \$40
- 발치(Partial Bony): \$65
- 발치(Full Bony): \$75
- 크라운(PFM): \$300 + options
- 신경치료: \$150+
- 틀이(Full): \$375+Lab fee

◆ **Service Location**
Los Angeles, Torrance, Fullerton/Anaheim/Cerritos/Norwalk, Riverside Irvine/Garden Grove/Santa Ana, Rowland Heights/Diamond Bar

전화가입 (213) 944-5067 (714) 713-1735

온라인가입 www.podental.com

PEOPLE-ORIENTED HEALTHCARE, INC. This plan is not insurance and is not intended to replace insurance. The plan provides discounts at certain dental care providers for dental services. The plan does not make payments directly to the providers of dental services. Plan members are obligated to pay for all dental care services. PEOPLE ORIENTED HEALTH CARE, INC. 626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TEL. 1-800-341-0884 FAX. 714-644-8223 WWW.POHEALTHCAE.COM

· 여승훈 목사의 목상칼럼

최고의 품격있는 교회와 신자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한국 사회에는 저녁이 되면 빨간 불빛의 불긋 불긋한 십자가가 수없이 보인다. 그 불긋 불긋한 십자가는 곧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저녁에 보이는 십자가의 숫자를 보면 그 지역에 교회가 대충 몇 개 정도 있는지를 가늠한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말한다. 즉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곧 교회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교회에 대한 불건전한 사고를 형성하는 것 같다.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이 곧 교회라는 등식은 건물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A급 교회, B급 교회, C급 교회로 구분짓는 경향이 사람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교회 건물만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교회 건물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매우 서글픈 현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교회에 대한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자.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과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 리그 선수로 뛸 때를 회상해 보자. 그는 종종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매스컴에서 문제로 지적하던 내용이 투구하는 기본 폼에 관한 것이었다. 기본 폼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최고의 투구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본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에 관한 이론들과 판단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가?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어느 한인 식당이라도 가보라.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의 주제 가운데 교회에 관한 내용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교회들의 아픔에 관한 것이다.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이런 저런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럴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보게 된다.

대답은 교회를 이해하는 기본 원리가 허술하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어느날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을 지나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즉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곧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씀의 진의는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세히 살펴 보라.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주는 구원자시라는 뜻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본성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즉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고 하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로 대체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만약 건물을 교회로 인식 한다면 초라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스스로 얼마나 초라하게 생각하겠는가? 반면에 화려한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얼마나 우쭐해 하며 웃지 못할 건물 엘리트 의식에 사로 잡히겠는가?

왜 주님의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는가? 화려한 건물 때문인가? 그런 화려한 건물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허황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모인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은 금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은

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로 A급 교회요 A급 신자들 아니겠는가? 혹은 인간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보배롭게 보이지 않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건물 자랑으로 교회 신앙의 수준을 대변하려는 생각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과거 90년대 초에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였다. 그 당시 한국 선교사들이 제법 많이 들어가 활동하였다. 그때 남겨진 일부 오점들 가운데 하나가 소련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는 존중없이 몰랑 공세로 외형적인 성과 위주의 선교 전략으로 인한 소련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어느 선교사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소련 사람들 대부분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그들의 민족적 우수성에 대한 자존심을 더욱 다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화려한 건물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 대한 참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면 이런 경우 “속 빈 강정”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속 빈 강정의 의미는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주님은 속 빈 강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속이 짙은 강정같은 교회를 보기 원하신다. 만약 속 빈 강정같은 교회를 세운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흔적이 뚜렷이 남게 될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예수님) 교회”를 세우면 된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관건은 기초 원리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여부에 사활이 달려 있다. 만약 교회에 대한 자랑이 있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인 예수님께 대한 신앙고백으로 인한 자랑을 하라. 만약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한 부흥 성장이 되게 하라. 가장 멋진 교회, 가장 품격 있는 교회, 최고 수준의 교회 그런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W M S WISDOM MISSION SCHOOL



WMS에서 영적 · 정신적 · 학구적으로 성숙돼

본지는 학업을 포함해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학생들이 WISDOM MISSION SCHOOL(WMS, 지혜 선교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명문대에 진학했는지를 알려주는 간증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WMS는 199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약 45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 Harvard, Yale, Stanford, UC Berkeley 그리고 의과대학 등 미국의 여러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온 Han Sam SAT 학원이 모태다. 이 학교는 이 시대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각 학생들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견, 개발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에 진출시키는 데에 그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Gloria Shin Yang
UC Davis

지 3개월 만에 본 AP 모의고사에서 Pass해 나 자신도 엄청 놀랐다. 나는 이 결과로 인해 WMS 선생

님들이 AP 시험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WMS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에도 수고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개인지도도 해 주셨다.

WMS는 나에게 공부로 도와준 것 뿐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었다. WMS에 다니면서 나는 배움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좋은 공부습관과 바른 인생관과 바른 인간관계를 배우게 됨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목적이 확실한 학생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WMS를 통해 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학구적으로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도와주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사를 드린다. 나도 미래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끝>

<마지막 간증> Wisdom Mission School에 오기 전 나는 불행한 학생이었다. 거의 매일을 과제물 때문에 밤을 새야만 했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은 점점 떨어져 원래 다니던 옥스포드고등학교에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여 공부할 의욕도 잃어 버렸다.

그러던 중 WMS에 다니던 친구의 소개로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10학년 마지막 즈음에 WMS로 전학하였다. 처음에는 WMS가 옥스포드보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교장선생님의 격려와 권면으로 WMS로 전학한

학교 문의) 5851 Newman St, Cypress, CA90630
714-995-1900 / www.wisdommissionschool.com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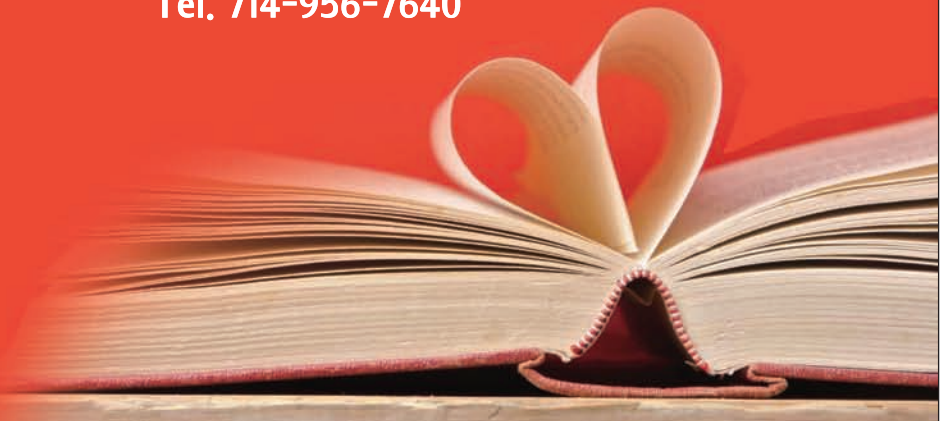
성서유니온선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매일성경 미주 독자 세미나

“빌립보서”

<일시 및 장소>
3/4(수) 저녁 7시 LA 충현선교교회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el. 818-549-9191
3/11(수) 저녁 7시 OC 로템장로교회
1759 West Broadway Anaheim, CA 92804
Tel. 714-956-7640

대상 : 매일성경 미주 독자 및 목회자, 신학생, 모든 평신도
강사 : 황진기 목사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Ph. 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 D Min. 원장)
문의 : 김진국 목사(714-876-8832)
주최 : 매일성경 미주 서부 사역 위원회



그리스도의 표적을 위한 기적들

마태복음 8:23-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이적은 한자로 뿔(다를 이),跡(흔적 적)입니다. 보통 인간의 지각, 이성적 분별력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이적이라 합니다. 기사는 신(신기할 기),事(일 사)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의식수준으로는 형이상학이나 형이상학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의 흔적이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흔적을 말합니다.

1.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고 교통 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데, 문둥병자 하나가 그 전날 계속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기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뽐질세라 저녁에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발적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이 기도를 다 하시고 내려오시다 가 길목을 지키고 있던 문둥병자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합니다. 이 함축된 표현의 간절함 속에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문둥병은 문제없이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믿어지지만 내가 문둥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 있음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의 절대주권을 100%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2. 백부장의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문둥병자 일이 있고 난 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때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마8:6)하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합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마8:8)합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군대의 파견 대장이고 그 사람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는 부대 안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아주 겸손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가혹하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미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8:10)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찌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3.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는 베드로가 사는 벳새다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데리고 다니시기 때문에 베드로 집에는 부인과 아이들만 사는데 생활이 말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할 수 없이 친정 어머니를 오시라고 해서 그 가정에 봉사하시다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동네 소문이 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다니느라고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장모님을 모셔다가 자녀들을 돌보게 하고 가사를 도와달라고 하고 베드로의 아내가 부엌가에 가서 노동해서 폼 팔아서 먹고 살게 되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12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마8:15)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으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다(마8:16).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마8:17,사53:4).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적기사의 표적이 베드로가 살던 동네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4.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예수님의 이적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구약시대부터 보내주신다고 예언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며 옹위합니

다. 그 때에 예수님이 무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보시고 저 북쪽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를 제자들에게 지시 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절을 하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아리이다"했습니다.

서기관이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 구약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에 아주 통달한 연구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절의 말씀입니다. 물질기대심리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 치르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겠으니 장사할 수 있는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냉담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합니다(마8:22).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또 저희 죽은 자라는 것은 육신이 죽은 빌립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에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하고 하늘 소망의 진리를 깨우쳐야 하는 입장이 우선 이기에 아버지의 장례치르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생명을 얻어 살았으니 나하고 같이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5.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통한 메시아적 증거(證據)

본문 23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갈 배를 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배

에 오르셨습니다. 열미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닥치니 파도가 산더미처럼 일어납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고 뱃사람,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배라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파도는 점점 더 높고 역세계 배에 부딪혀 곧 뒤집힐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의 기술도 경험도 능력도 한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 위의 사공이었던 제자들과 배 밑 칸에서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 반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에 함께 탔다고 하면 어떤 천재지변도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 즉시 바람과 바다는 아주 잔잔해 졌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는 이 한마디 속에는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이 배가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왜 공연한 걱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 분이 나를 자기백성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밀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나에게 쓰실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나를 쓰실 계획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브 방송 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기독일보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기독일보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장: Sole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증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 대학교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p> <p>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seul@gmail.com</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사명을 이끌어 갈 사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p> <p>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nstructor@gmail.com</p>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스페셜 폴 장학금 혜택 (이중언어 사용 능통한자)**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홍해를 건넌 사건의 영적 의미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으로 보면 바다는 건널 수 없는 막다른 골목, 멸망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강력한 동풍으로 이곳에 바닷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는 해저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다.

둘째는 이 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집트의 심판이 교차하는 점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선민에게는 구원이지만, 대적하는 세력에게는 심판이다. 이 바닷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바다로 들어오지만, 병거바퀴가 빠지고 벗겨지며 물에서 심판을 받는다.

셋째는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모세와 백성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 미리암의 찬송이 울려 퍼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중에 높임을 받으신다. 약하여 스스로 이집트에 저항할 수도 없는 이 백성을 노예상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

넷째는 이 기적을 통하여 고대의 두려움의 대상인 혼돈의 바다와 그 속에 노는 흑암의 세력이 심판을 받는다. 이사야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라합"이라는 용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그린다.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사 51:9).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신다.

다섯째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고전 10:1-2).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불편한 예수 III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안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왜 청소년들이 예수님을(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지난 번에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와 첫번째 해답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2.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이 귀찮으며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청소년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이것은 대부분의 기성세대 교인에게도 적용되는 지적이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내지 QT,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 분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귀찮은 일이다. 이런 것은 이미 분주한 스케줄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엔 성경읽기나 묵상은 시간이 남을 때, 편할 때, 일주일에 한 두번,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들은 여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알아가려면 장시간을 통해, 깊은 대화를 통해, 잦고 긴밀한 접촉과 관계를 통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쌍방이 그 관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그 분을 찾고, 배우고, 알아가라고 하신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분을 믿지만 불편해하는 사람도 많다. 청소년의 경우는 더 그렇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그 분의 초청에 반응해야 할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구약시대에는 직접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과 대화 해 달라고 청했고, 그 후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분의 얼굴까지 보여주셨지만 함께하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 갈 수 없으며, 나아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또는 "왜 삶에 임재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많은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자신의 기도나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무뎠뎠한, 관심이 없는 분이라 여긴다. (이것은 학생들만의 느낌이나 반응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이걸 싫어하고 거부한다. 왜? 물론, 반복되는 형식적인 묵상/QT, 말씀 읽기/암기에 싫증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어려서 부터 부모의 강요로 해온 묵상/QT, 말씀 읽기/암기가 귀찮아졌으며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놀이거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자신의 개성이 점차 뚜렷해지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함) 개인적 욕구를 절제할 능력은 부족하기에 청소년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여기서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아예 신앙 자체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십대의 모습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혼동속에 있는 청소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가정과 교회는 이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즉, 교회 사역의 초점은, 청소년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수련회, 기도회, 말씀 집회, 초청 등)를 수시로 제공하고, 그 만남 다음에 훈련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 사역은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아직 회

심하지 못했고, 신앙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을 갖고 있는 학생은 교회가 너무 딱딱하고 짐스러운 곳, 전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곳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도 말씀을 형식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럴려면 부모가 매 순간 순간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가 신앙의 모든걸 책임질것이라 오산하면 안된다)

더 나아가, 묵상은 기록하게 하고, 꼭 묵상한 내용을 나누거나, 좋은 다이얼로그나 SOAP 같은 묵상노트 북에 적게하라. 또, 좋은 기독교 서적을 제공해야 한다.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 삶의 지혜와 체험담을 담은 책들을 소개하고, 신앙에 관한 질문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 (예를 들어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내지 The Case for Christianity, 또는 Mere Christianity 등)을 소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나 학교, 또 친지를 통해 좋은 멘토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 청소년은 좋은 멘토를 만나 좋은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여러번 말하는 것보다 좋은 멘토의 한 마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직접 멘토를 만날 수 없다면 좋은 저자를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끝으로 슬로우 페이스를 유지하길 권하고 싶다. 너무 바빠 살지 말고, 너무 많은 활동도 요구하지 말고, 어린이에게 다운-타임이 필요하듯이 청소년에게도 다운-타임이 필요함을 잊지말자. 다운-타임은 삶의 원동력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잘 사용하도록 가르치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테크놀로지 사용을 절제해야하며 (100% 제거는 불가능하지만) 적절한 사용시간/범위를 어려서부터 지킴으로써 가르쳐서 절제를 유도해 보자.

슬로우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참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저녁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모여 10분간 말씀 읽는 시간, 교회에서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이 슬로우 페이스 유지에 매우 좋은 무덤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신앙을 거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강요보다 설득, 억지보다 협상과 카운셀링, 그리고 인내가 필요함을 잊지 말자.

<계속>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걸지 못했으나 M3 세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음을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할 정도로 원래,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질,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암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이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세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야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세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적인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봉(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동중 M3세트 복용3달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동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 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부터 흔저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끝이 너무 많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광(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졸다는 약을 찾던 중 M3세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고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뭉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년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이야기 42

1975년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 소프트웨어를 창업하여 135억달러 그 러니까 약16조원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앨런이 지금 현재 림프종이라는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57세입니다. 림프종이란 백혈병 같은 혈액암 중 하나인데, 백혈병은 골수에서 시작하는 혈액 질환인 반면에 림프종은 백혈 구를 이루는 것 중 하나인 림프구가 악성으로 변한 종양을 말합니다. 발생 가능부위를 살펴보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뱃속, 가슴속, 림프관 등 신체 어디에서든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일단 종양이 발생하면 그 치료 방법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만, 전 미국 대통령 부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다가 몇일만에 죽은것을 보아서도 화학요법은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항암제 치료는 우리몸을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지켜주는 백혈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약이 되어야 할 치료방법이 독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적인 방법보다는 차가버섯 치료 방법이 있는데 항암치료에는 이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암을 고치기가 어렵고 암은 환자 스스로가 현명해야 고칠 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 림프종 암이나 각종의 암을 예방할수 있는 방법과 그 치료방법을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그 손자 르호보암왕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 데 남쪽을 남유다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망하게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제국에 의하여 함락되기 직전에 예레미야서 35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레갑족속의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심으로써 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주시는 장면입니다 2절로

2.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시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샌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예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렉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파크 지주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리비아 기독교 지도자 IS 위협 불구 “떠나지 않을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는 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이탈리아 사제가 이슬람국가(IS)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순교의 각오를 전했다.

지오바니 마르티넬리(Giovanni Martinelli) 사제는 현재까지 리비아에 남아 있다. 반면에 이미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자국의 군함 등의 호위를 받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마르티넬리 사제는 “이곳에 남아 있기로 한 것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거리에서 한 무슬림 남성에게 ‘당신은 이슬람의 적대자’라는 말과 함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떤 무슬림들은 교회에 찾아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들에게 마르티넬리 신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 만약 내가 참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간증을 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귀하다. 주님께서 이를 내게 허락해 주시고, 순교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두렵지 않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그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사제가 지난 1219년 십자군 전쟁을 평화롭게 끝내기 위해 이집트의 술탄 알 말리크 알카밀에게 찾아가 그를

개종시키고자 했던 것을 떠올렸다. 당시 사라센 진영으로 넘어간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 수사들은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술탄 앞으로 끌려가 며칠 동안 그의 막사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에서 1971년부터 머물렀던 마르티넬리 사제는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다. 그가 리비아에 도착했을 당시 현지 크리스천 인구는 15만명이었으나, 현재는 300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IS는 지난 15일 리비아에서 인질로 잡았던 이집트 콥트교도 21명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해 전세계를 경악케 했다.

강혜진 기자

일본오순절친교회 “제50회 기념대회” 개최

주강사 마크 코너 목사, 진정한 교회는 ‘노력’이 아닌 ‘훈련’에 의해



일본오순절친교회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일본오순절친교회(日本ペンテコステ親教会)가 ‘제50회 기념대회’를 10일-13일까지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야마하리조트 츠마고이에서 개최했다.

대회 강사로는 미국 시티바이블교회 디 아이버슨 목사, 시티교회 지니 스미스 목사, 호주 시티라이프교회 마크 코너 목사가 나섰다.

시티바이블교회 디 아이버슨 목사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깊이 긍휼히 여기셨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

시티교회 지니 스미스 목사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는 주께 있을 희망뿐이다. 그것을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늘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당부했다.

주강사로 강대상에 선 마크 코너 목사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닌 ‘훈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내일 당장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굳은 결심을 하고 노력해도 완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처럼 크리스천에게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최우선 사항은 선교라며 이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과, 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언급했다.

행사에 참석한 캐나다와그레이스체플 츠지모토 신고 목사는 “교회나 개인적으로 과거의 DNA를 확실히 계승하면서도 미래로 향한다는 주제를, 강사들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어 은혜가 충만한 대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성현 기자

수단 女 이브라힘, 국제기독교언론협회장상 수상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 것의 의미 보여 줘



메리암 이브라힘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자유를 되찾은 수단 기독교인 여성 메리암 이브라힘(Meriam Ibrahim)이 국제기독교언론협회(NRB) 회장상을 수상했다.

NRB의 제리 존슨 회장은 이브라힘이 수감되어 있을 동안 보여 주었던 믿음이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 시대의 본보기기를 보여 주었다”며 상을 수여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2015년 협회에서 그에게 상을 수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

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브라힘은 지난해 3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배교 혐의를 받았으며 여기에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데 대한 간통 혐의까지 더해져 수단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태형 100대를 선고받았다.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이브라힘은 5월에 감옥에서 둘째인 딸 마야를 낳았고 출산 후 사형 집행이라는 판결에 따라 생명이 위태롭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브라힘을 위한 세계적인 청원 운동과 국제사회 압박이 계속되면서 수단 법원은 이브라힘을 석방하기에 이르렀고, 지난 8월 메리암은 남편의 고향인 미국 뉴햄프셔에 가족들과 함께 안착할 수 있었다.

이브라힘은 수감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개종 협박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하고 신앙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9월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며 “어떻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시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응답되었다”고 그는 간증했다.

이브라힘은 이슬람 국가인 수단 법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으로 종교가 정해졌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라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단 한 번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누구든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 가며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안타까워 하며 “종교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손현정 기자

이란, 가정교회 운동 지도자 1년여 만에 석방



라솔 압둘라히 목사

가독교 신앙을 이유로 지난 2013년 구금됐던 이란 목회자가 최근 석방됐다.

라솔 압둘라히(Rasoul Abdollahi) 목사는 지난 2010년 12월 26일 기독교 활동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단속에 의해 체포돼, 구금 및 심문을 당하다가 2주 후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후 지난 2013년 12월 2일 재수감됐다. 이번엔 석방돼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압둘라히 목사는 이란의 ‘가정교회 운동’ 지도자로서, 이날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와 함께 석방됐

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체포됐던 파르시드 파씨(Farshid Fathi) 목사의 형기는 더욱 늘어간 상태다.

의명의 한 관계자는 “이란 사법부는 기독교인들이 체포돼 법정에서 전에 알아서 이란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을 구금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으며, 비용을 들이기보다 아예 이란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이란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2014년 12월부터 현재 대략 92명의 이란 기독교인들이 구금됐으며, 이 가운데 아직 13명이 수감된 상태다. 이란은 국가안보법에 의해 압둘라히 목사의 기독교 사역을 정치적으로 다뤘다고 한다.

강혜진 기자

IS, 또다시 시리아 기독교인 90여명 납치

예측할 수 없는 이슬람국가(IS)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폭스뉴스의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IS가 시리아의 동부 하사케주(州) 소도시 탈 타머를 급습했다. 이로 인해 90여명의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이 납치됐는데, 그 가운데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다수 포

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인권관측소나 디멘드포엑션의 활동가들은 납치된 사람들 대부분이 탈 샤미람 출신이라고 밝혔다. 현재 베이루트에서 살고 있는 탈 샤미람 출신의 한 아시리아 여성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며, 가족들의

생사를 알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IS는 납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자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장한 대원들이 ‘십자군(기독교인)’ 수십 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영인 기자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서북미 지역 장애인 선교 앞장

장애인, 구제와 긍휼의 대상 넘어 구원 받아야 할 선교의 대상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다.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를 표어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가 지난해부터 장애인 선교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 주일 오전 11시-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사랑부 장애인 예배는 장애인 사역 전문 단체인 시애틀 밀알선교단의 장영준 목사가 맡고 있으며,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적, 지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랑부에서는 예배 뿐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크레프트, 야외학습, 실내의 게임, 캠프, Out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할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예배를 통해 장애인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며, 영여권 장애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 아동으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부모들은 오전 10시 50분에 진행되는 주일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장애인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영적, 지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재할을 위한 크레프트, 야외학습, 실내의 게임, 캠프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예배를 인도할 장영준 목사는 “교회가 장애인들을 자칫 구제의 대상이나 긍휼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데, 장애인들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선교의 대상”이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고 사랑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영준 목사는 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장애인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PCUSA “동성결혼 인정” 노회 투표 진행 중

현재까지 총 172개 노회 중 61곳이 찬성

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는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쪽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CUSA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기존 정의를 수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노회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실상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단법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172개 노회 가운데 84개 노회에서 투표를 마쳤으며 이 중 61개 노회가 찬성하는 쪽으로, 23개 노회가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균했다. 전체 노회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단 보수주의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PCUSA 평신도 위원회의 카멘 파울러 라베르즈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부정적인 전망 앞에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에서 멀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비극적인 일이다”고 했다.

그는 “PCUSA는 세대를 걸쳐 전해져 온 신학적 바탕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이 투표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진보주의의 진리에 대한 침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 보여 준다”고 씩씩해 했다.

지난해 7월 PCUSA는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제221회 총회 기간 결혼의 정의와 관련된 교단 규제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개정안 최종 통과를 위해서 노회 투표를 진행해 왔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올해 6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앞으로 PCUSA는 이성 간의 결혼뿐 아니라 동성간 결혼 역시 인정하는 교단이 된다.

한편, PCUSA는 지난 2010년에는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교단 내 보수주의자들의 큰 반발을 샀으며 이에 반대하는 교회들의 이탈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라베르즈 회장은 “교인들은 우리 교단이 성경 진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교단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정 기자

40일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맞아 평신도가 말씀 전하기도



이 교회의 지난해 사순절특별새벽기도회 모습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황형영 목사)가 사순절 기간 평신도인도 40일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마라나타(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기도회에는 매일 다른 선교회 및 임원회, 부서에서 특송을 준비하고, 담임목사는 물론 평신도들도 말씀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계시록 1장부터 차례대로 보고 있으며,

더 많은 평신도들의 참여를 복돋고 있다. 교회 측은 “기도회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자”고 권면하고 있다.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는 “생명의 빵을 먹고 나누는 제자 공동체”라는 2015년 표어를 가지고, 제자 훈련, 중보기도, 묵상 운동 등으로 탄탄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권문정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8: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1:45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심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찬양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us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요한, 미음, 강,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지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너) 전단
음식 보조 프로그램 (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레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구역별 오후 7:30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요 찬양예배 오후 1: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함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323) 428-7878 / F. (323) 932-0788 / kuhnholly@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lakwpc.org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정신의 흐름, 비전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6: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지고(Healing), 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 선교교회
내 지면을 넘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하느님에,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절연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전중학교 / 토요새벽 - 17와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 - LASFC대한교회(6와와 라파엘트 코너-5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인(2세)을 복음화하며, 이인(가정)을 복음화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버질중학교 (1가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6-2233 / www.LASara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선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r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1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nmam.com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침례교회를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 월-금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후성경공부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전 7:30 영아예배(EM)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epage.com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선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선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겸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선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주일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화)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EM(수)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6:00
EM(목)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6:00

김배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선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선양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EM1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전 10시(칠보우림) 금요일선양예배 오후 6:00
오후 12:00(본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희 역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예배)주일 오전 9:45 수요일(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 오전 11:00 주일모임 매월 1회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한국교회(도회) 오전 10:30

조인 담임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영화 <제자 옥한흠> 뉴욕-뉴저지 상영 성황 이뤘



지난 15일, 쿼츠한인교회에서 열린 <제자 옥한흠> 상영회에 참석한 교계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영화를 감상하며 숙연해 하고 있다.

故 옥한흠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제자 옥한흠>이 지난 14일과 15일 뉴저지와 뉴욕에서 연속 상영돼 성황을 이뤘다.

영화는 14일 뉴저지 한소망교회(담임 김귀안 목사)와 15일 쿼츠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연속 이틀간 상영됐으며, 지역교회들의 단체 관람을 비롯해 교계 지도자들도 참석해 영화를 감상했다.

김상철 감독이 제작한 <제자 옥한흠>은 2014년 한국 다큐멘터리 개봉작 중 <님이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다이빙벨>에 이어 관객 순위 3위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은 기독교 영화이다.

영화는 옥한흠 목사가 주창한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이 현재까지 한국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조명하고 있으며, 옥한흠 목사의 일대기와 함께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등의 동료 목회자들이 추억하는 옥한흠 목사를 그리고 있다.

15일 쿼츠한인교회 상영회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도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모인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로 예배당이 가득했다.

이날 상영회는 쿼츠한인교회 이규섭 목사의 사회로 뉴욕교협회장 이재택 목사 기도, 영화상영, 문석진 목사(씨즌 대표) 인사말, 뉴욕목사회장 이만호 목사 헌금기도, 통성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상영회를 기획한 씨즌 대표 문석진 목사는 인사말에서 "영화가 주는 기독교적 임팩트가 교회들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이런 파워풀하고 좋은 기독교 영화가 계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미디어 선교사의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영화 상영을 마친 후에는 이규섭 목사가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이규섭 목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신의 신앙의 변화와 뉴욕교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원 기자

2015 한인침례교선교대회 개최

교회 개혁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영적 부흥, 실제적 선교전략 제시

교회 개혁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영적 부흥, 실제적 선교전략을 제시하는 2015 한인침례교선교대회(대회장 문창선 목사, 위성교 목사)가 교회를 개혁한 목회자, 개척을 준비하는 신학생(목회자), 선교사 등의 사역자와 선교에 뜻을 둔 평신도를 대상으로 달라스 뉴송교회(담임목사 박인화)에서 개최됐다.

지난 23일~25일까지 사흘간 계속된 이번 대회는 "그런즉 이는 이나 몰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린도전서 3:7)라는 주제말씀을 가지고 '심으라!'를 핵심 주제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복음적이고 성공적인 교회 개혁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한인침례교선교대회는 강사로는 타코마 제일교회 최성은 목사를 비롯해, 텍사스주총회 사무총장 짐 리처드 박사,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 총장 제프 로그 박사, SBC 전 총회장 프레드 루터 박사,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총회장 위성교 목사 등이 나서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최측은 "선교의 주제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계 한인 침례교회들을 사용하시고, 한국민이 복음 전파자로서 더 많은 책임을 담당케 하셨다"며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 의식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미주 한인교회 개혁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영혼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사명 의식을 재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넓이와 깊이가 확대되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



2015 한인 침례교 선교대회
Korean Global Mission Conference

심으라
(Plant)

2015. 2. 23(월) ~ 25(수)
장소: 달라스 뉴송교회 (담임 박인화 목사)

지난 2월 23일~25일까지, 달라스 뉴송교회에서 2015한인침례교선교대회가 개최됐다.

"개인적 삶을 넘어 인류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호평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한인침례교 선교대회는 남침례교회가 미국내 30개 대도시 15,000개 교회를 세우기로 선교 전략을 선회함에 따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적인 교회개혁에 대해 알리고 그동안 한인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침례회국제선교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는 2010년까지 한인선교사 1000명 파송을 목표로 하고, 그 일대 자신의 삶을 헌신할 일꾼들을 찾고 있어 그만큼 한인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편 올해 2015 한인침례교선교대회는 남침례교 산하 북미선교부(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와 남침례교 한인교회총회 국내선교부, SBTC(Southern Baptist of Texas Convention), KGMS(Korean Global Mission Summit), 텍사스남침례회 한인교회협의회(KBFT) 공동 주최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사순절 맞아 다니엘 영성여정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



연합장로교회가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된 18일, 애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는 재의 수요일 예식을 가졌다.

이날 정인수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 성도들이 회생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 없다”며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고백의 헌신을 감사함으로 드러야 한다. 예수님 발앞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한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은혜받고 그 감격으로 사역해야 한다.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 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았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기록된다. 십자가에 달

린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히 연합장로교회가 사순절기간 진행하는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40일 영성여정’이 2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됐다.

릭 워렌 목사가 새들백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행해 온 건강 프로젝트의 ‘다니엘 플랜’은 신앙, 식습관, 신체단련, 삶의 초점, 우정을 기본 요소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인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돕는다.

연합장로교회의 2015년 표어는 “영과 육이 회복되어 강건해지는 교회”이다.

윤수영 기자

시애틀 퀘스트교회

옛 마스힐 발라드 교회 건물 매입하고 도약 다짐



시애틀 퀘스트교회가 이전할 옛 마스힐 발라드 교회 성전

한인 2세 목회자 유진 조 목사가 담임하는 시애틀 퀘스트교회가 지난해 담임 목사의 자질 논란과 내분 등으로 해체된 시애틀 대형교회 마스힐교회(Mars Hill Church)의 발라드 성전을 매입하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애틀 퀘스트교회가 매입한 구 마스힐교회(1401 NW Leary Way)는 4만스퀘어피트 규모로 현재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의 예배 공간과 다양한 교육 및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교회에서 불과 1.2마일 떨어진 거리라 교회 이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퀘스트교회는 유진 조 목사와 조민희 사모가 2001년 자택 거실에서 개척한 교회로 다민족, 다세대, 커뮤니티와 시애틀, 나아가 세상을 섬긴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영혼, 커뮤니티의 화합, 열정, 정의, 세계적인 존재 등 다섯 가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시애틀 퀘스트교회는 올해 말, 새로 구입한 발라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이전 마스힐 발라드 교인들이 개척한 크로스&크라운 교회가 렌트해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쓰는 것을 보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시애틀 퀘스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복음은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이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표를 붙들고 하나님과 이웃, 커뮤니티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 퀘스트교회는 이번 이전을 사역의 청신호로 보고 있다. 교회의 중요한 협력 사역지 가운데 하나인 브릿지케어센터(BCC)가 이전할 건물과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BCC는 발라드 지역 남녀 무숙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한편 시애틀 퀘스트교회를 담임하는 유진 조 목사는 하루치 일당을 기부해 세상의 가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설립한 “One Day’s Wages”로도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케네스 배 구명 운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 세계 크리스천 인권 구명에도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유진 조 목사

O.C./앨버진 지역

오병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이래픽성탄제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찬양인예배 오전 11:00
영아장년부 오전 9:00, 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 F. (562) 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GLMC) 주일 오후 12:30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회 저녁 8:00 분당
금요일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 F. (714) 308-7038 / us4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8시, 오전 10시
화요일 오후 7시 (계시목)
금요일 오후 7시 (계시목 7교회)

남상국 담임목사

오픈바이블교회
OPEN BIBLE CHURCH

800 S Harbor Blvd. #220, Anaheim, CA 92805 (Harbor + South)
T. (949) 285-0619 / E. obchurch7@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려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원의 삶으로 살리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www.socalsamsungchurch.org

주일예배 장년 1부 9:00am
2부 11:00am
Youth 예배 12:15pm
Children 11:00am

EM 1:30p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정철 담임목사

새생명한인교회

15 Goddard, Irvine CA 92618
T. (949) 341-0022 / (949) 398-7303
www.newlifek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전 12:45
금요일 새벽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vd, Yorba Linda, CA 92886 (교외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장년부 오후 2:00

권혁민 담임목사

앨버진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2: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앨버진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 삼십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 (성경 66권 특별 성경 공부)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새 땅으로 변화를 받아
해방의 선한교회 기쁨의교회 온전선한교회 무장교회 분리의교회 (2)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인타르 생방송들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어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 (분당)
주일 새벽예배 오전 11:30
주일 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일 성경공부 오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일 저녁 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령예배 오전 2:30
주일 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회중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일 성경학교 오후 7:30
목요일 성령학교 오후 8:00
토요일 EM에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장하면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in.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용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라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인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어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아.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져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장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맑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생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를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도.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같은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최초 한국어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과정 개설

현장 목양사역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접근한 21세기 교회 모델 제시가 목적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학부 학장 박상진 박사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설립한 6대 신학대학원 중 하나이며 규모로는 미국내 10대 세미너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ies Emphasis)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하고 지원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 과정은 미국의 우수한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이 학교의 한국부가 쌓아올린 전문적이고도 실제적인 높은 수준의 강의가 이번 Ph.D. 과정 개설을 가능케 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부 학장인 박상진 박사에게 의하면 이번에 개설된 Ph.D. 과정이 자칫 업그레이드된 D.Min. 과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프로그램이나 학문적 접근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Ph.D. 과정은 '저희 학교의 모토가 '교회를 위하여'이듯이 이 과정의 시작은 '성경적인 교회론'에

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라 함은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교회론을 논하지만, 우리는 구약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신약에 있어서는 구약의 문맥에서 발전해 온 '예수의 백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체로서의 사상과 성격을 배워게 됩니다.

또 '성경과 목회 모델'이라는 과목을 통해 '성경적 교회론'을 한국과 미국 한인 이민교회에서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로 이를 교회 목양 사역에 적용해 온 목회자들(과목당 세 명 정도)을 초청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 철학과 모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실제 사역에 있어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적 교회론'을 실제적으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게도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경신학과 현대문화와의 대화'라는 과목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두 과목으로 '성경적 교회론'의 이론과 사역의 실재를 배운 후, 이런 모델이 어떤 성경신학적인 토대를 근거로 현대문화와 반응을 해야 하는가를 문화철학과 성경신학 및 윤리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조망하고 배우

는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즉, 이 Ph.D.과정은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21세기 문화 속에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을 현장 목양사역의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학점은 총 52학점(10과목)으로 공통필수 4과목(콜로퀴엄, 인테그레이팅, 논문준비, 고등교육의 교육원리와 방법론), 전공필수 3과목(성경적 교회론, 성경과 목회 모델, 성경신학과 현대문화와의 대화), 전공선택 3과목과 종합시험 4학점, 논문 8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자격으로는 정규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M.Div.)를 졸업 및 이에 준하는 석사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평균학점 3.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본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성경 히브리어 6학점, 성경 헬라이어 6학점을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입학 후 미드웨스턴 한국부 석사원에서 제공하는 기초 히브리어 문법 2과목, 기초 헬라이어 문법 2과목을 본 과정의 코스웍이 끝나기 전에 이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본 과정은 모국어에 제외한 현대 외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제 2외국어는 본인이 쓰고 싶은 논문의 주제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칼 바르트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전경

목회 철학에 대해 논문을 쓴다면 독일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해야 한다. 본 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제 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기도 하다.

제 2외국어 시험은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시험에 국한된다. 목회학 석사나 그 외 기독교와 관련된 석사과정에서 제 2외국어로 들은 과목(3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회화과목은 인정 안됨)을 B+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면 제 2외국어 시험은 면제된다. 토플 iBT시험에서 읽기 성적이 22점 이상을 받았다면 영어시험 또한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과정 이수에 언어적인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한국부 프로그램의 수준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그 어느 신학교

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그런데 이번 한국어 Ph.D. 과정 개설로 인해 이전보다도 훨씬 격상된 학문수준을 계속적으로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한국인 신학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Ph.D. 과정이 훌륭하게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민 사회속에서의 한국인의 자긍심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좋은 선례를 남겨 신학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문의: 이미경 간사
전화: 816-414-3754
이메일: ks@mbts.edu
사이트: www.mbts.edu

이영인 기자

흔들림 없는 믿음, 말씀으로 일어서는 믿음

미주 독자 성경 세미나, 매일성경 미주서부사역위원회 주최로 격월마다 열려



매일성경 미주 독자 세미나가 격월로 은혜롭게 열리고 있다.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이사장 김경식 목사) 지회인 매일성경 미주 서부사역위원회(위원장 민종기 목사·총현선교회회 사무)는 미주 지역 매일성경 독자들을 위해 '매일성경 미주 독자 세미나'를 두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매일성경 미주 서부사역위원회는 미주에서 매일성경을 구독하는 매일성경 미주 독자 및 목회자, 신학생, 모든 평신도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2013년 8월에 발족했다. 이 지회는 위원장 민종기 목사를 비롯 4명의 사역 위원들이 함께 섬기

고 있다. 또 격월로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독자세미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지경을 넓혀가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도 독자세미나는 엘에이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3월에 두번째 걸쳐 열릴 미주 독자 세미나에서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게 된다. 매일성경으로 묵상하는 미주 독자와 목회자, 신학생, 모든 평신도들과 교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세미나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회지를 토렌스나 하시엔다, 샌디에고 등의 지역으로 점차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신학교에 다닐 형편이 못되거나 말씀을 더 깊이 묵

상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 지회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는 큐티 세미나를 비롯한 묵상훈련(큐티), 소그룹 강의 등 말씀묵상에 도움이 되는 사역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교회나 단체가 있을시에는 그 단체를 찾아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이 사역에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은 1회성이 아닌 꾸준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적용해 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는 제대로된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통해 날마다 성령의 동행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그 귀한 삶의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 감당이 바로 이 지회가 하는 일이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이민자의 삶

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한 참된 기쁨을 누리하고자 한다면 이 세미나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한다. 성경보는 눈이 열려 마음문이 열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 매일성경 미주 독자 세미나
1차 세미나-일시: 3월 4일(수) 오후 7시/장소: 충현선교회(5005 Edenhurst Ave., LA, CA 90039)/전화: 818-549-9191/2차 세미나-일시: 3월 11일(수) 오후 7시/장소: 로템장로교회(1759 West Broadway Anaheim, CA 92804)/전화: 714-956-7640/강사: 황진기 목사(플러신학대학교, 신약학 Ph. D, K. D. Min. 원장)
|| 문의: 간사 김진국 목사
전화: 714-876-8832
이메일: johnkjk@hanmail.net
이영인 기자

TOGO & 캐더링 환영

미글러 싸갈러

연말연시 동창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 전문
정성껏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무슬림 구도자들도 사랑과 구원 알게 되길

극단주의 무슬림의 프랑스 언론사 테러에 이어 IS(이슬람국가)의 일본 크리스천 언론인 '참수'로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이동주 박사(사진·선교신학연구소장)가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무슬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1) 신론

서론

필자는 그동안 세계 복음화에 가장 도전이 되고 있는 아시아 종교 연구에 집중하다, 세계 이슬람이 2025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법(샤리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서둘러 사실 여부를 살펴 보니, 실로 여러 명의 무슬림들이 한국 사법계와 법조계까지 들어가 해마다 여러 차례 강연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교회가 무관심한 사이, 무슬림들은 발빠르게 이란의 사법부 주장인 아야톨라 마흐무드 하세미 사루다까지 모셔와 사법연수원에서 강의하게 했다.

실상을 알수록 필자는 이 외래종교에 무관심한 한국교회를 일깨우고자, 서둘러 변증적 연구발표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여러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이슬람의 실체를 밝히는 좋은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제 본연의 관심과 사명감으로 무슬림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논문을 쓰게 됐고, 설교 제목과 비슷한 이 논문 제목이 설득력 있을까 하는 의혹과 동시에 소원을 품고 있다.

논문의 내용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슬람교의 오해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하나님 사랑의 본질, 사랑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타락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무슬림 구도자들이 이 논문을 접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소원한다. 논문 내용은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신론, 기독교, 성경론, 구원론에 관해 다루게 된다.

1. 하나님은 누구인가?

요한일서 4장 8-11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사랑 때문에 남녀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 1:26-27). 또 가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

으로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고(신 6:5, 요 3:16, 요 21:15-17),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신 6:5).

그러나 꾸란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접근하는 일도 없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여 질문하는 것도 일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도 알라 또는 꾸란에 질문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늘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채 살아가고 있다.

1-1 무슬림들의 '삼위일체' 오해

무슬림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을 하나님·성모 마리아·예수라는 세 분의 신으로 오해하여, 극악한 신성모독죄(쉬르크)로 여기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의 신(神) 개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무슬림들이 기독교가 세 분의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아래와 같이 꾸란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꾸란은 알라 앞에 올라간 예수에게, 알라는 예수 자신과 그의 어머니를 숭배하게 하였느냐고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네가 백성에게 말하여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예수와 나의 어머니를 경배하라 하였느뇨 하시니, 영광을 받으소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으며 그렇게 할 권리도 없나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였다면 당신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 (Sura 5:116-117)”. “하나님이 셋 중의 하나라 말하는 그들은 분명 불신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거늘 만일 그들이 말한 것을 단념치 않는다면 그들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지리라... (Sura 5:73)”.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 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Sura 4:171)”.

꾸란은 세 분의 신으로 오해한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철저히 부정한다. 무함마드는 대상으로 여행 중에 시리아에서 아리우스 사상과 같은 이단 신학에 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고, 그 한 예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고 오직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의 피조물이라 주장하는 바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이동주 박사
선교신학연구소 소장

신성모독죄로 판정 받으므로써, 무슬림들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무함마드는 예비온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무함마드 출생 이전 많은 아라비아 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와 에티오피아, 시리아 배경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소그룹들이었다. 이러한 그룹에서 동정녀 마리아 숭배를 발견한 무함마드가, 이를 우상숭배로 정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2 하나님은 삼위일체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위의 성경 원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단 한 가지 유언이다. 그 유언의 내용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다. 그 '이름'이라는 그리스어 중성명사는 삼인칭 단수명사인 “그 이름”으로 되어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인 삼위일체란 본래 어떤 하나님인가? 하버드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연세대학교 교수 김정주는 논문에서 성령을 하나님 자신의 영이라 논증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수의 신이 아니고 유일한 신으로서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의 저서 『바울의 성령 이해』에서 구약의 유일신적 삼위일체의 '하나'에 관해 뛰어난 연구를 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발견하였다. 신명기 6장 4절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의 구절에서, 복수적 개념의 의미를 담은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이 복수적 의미를 품은 '하나'는

단일성 개념인 '하나'와 구별된다. '야히드'는 창세기 2장 2절, 스가라 12장 10절과 같은 '독자'를 위한 개념으로써 단일성을 나타내는 '하나'이다. 그러나 '에하드'는 에스겔 37장 17절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때', 또는 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때(창 2:24) 사용되는 복합적인 '하나'이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어가 왜 2인칭 복수대명사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창 1:26).

암울 마시흐는 세속적인 사람을 위해서 환자와 노른자와 껍질로 되어 있는 계란이나 삼각형 또는 삼분설적 인간론 등을 예로 들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본질은 공동체적 본질이다. 이 사랑의 본질이 인간과도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며,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결국 인간과 '임마누엘' 공동체를 이루시고, 인간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전인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신 6:5).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비로운 것이기에, 마르틴 루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를 그의 『소요리문답』(Der Kleine Katechismus)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하였다. “나는 나의 이성으로나 나의 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거나 그에게 나아올 수가 없다. 내가 주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그의 은사로서 깨닫게 하시며 올바른 신앙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지키시기 때문이다.”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하나님 자신의 영인 성령에 대한 지식 등은 인간의 사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받은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행 1:8, 행 2:38, 고전 12:3).

1-3 하나님은 아버지인가?

꾸란은 알라 외의 모든 존재는 예수를 포함하여 다 피조물이며,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노예일 뿐(Sura 19:93)이고, 예수 그리스도조차 알라의 노예라고 증거한다(Sura 4:172). 종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도 아버지도 없다(요일 2:23). ‘종’은 하나님을 오직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요 15:15).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용서 받은 일도 없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로부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려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무슬림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혼을 ‘적그리스도’라는 가장 비참한 영혼으로 묘사된다.

성경은 신명기 32장 5-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친다. 우리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의 본래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다. 이사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 호칭한다(사 43:6f). 또 딸 시온(사 1:8), 딸 애굽(렘 46:11), 딸 바벨론(렘 50:42), 딸 암몬(렘 49:1-4), 처녀 이스라엘(렘 18:13), 처녀 유다(애 1:15), 처녀 예루살렘(애 2:13), 처녀 에돔(애 4:21), 처녀 애굽(렘 46:11) 등과 같이 일컫기도 하고, 그의 백성을 아내나(사 54:6) 신부(사 62:4f) 칭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남편으로(사 54:5; 렘 3:8, 14, 렘 31:32), 아버지(사 64:8; 렘 3:19), 어머니 같은 하나님으로(사 66:13) 보여주시기도 한다.

죄를 용서받은 경험도 없고, 성령을 받은 일도 없는 무슬림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육적이고 물질적으로 읽어 오해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가족 공동체가 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므로, 이 모든 은총의 관계 개념을 육적이고 물질적으로 오해한다.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선교해야 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속히 그들에게 달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목사의 딸

박혜란 | 아가페북스 | 288쪽

논란의 책. 한국교회 최고의 주석가인故 박윤선 목사의 '딸'인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다. 아버지 신앙의 뿌리에 '유교적 권위주의'와 '사머니즘적 기복주의', '복음을 왜곡한 율법주의'가 있다고 거침없이 지적한다. 그러나 저자의 기복과 박 목사 제자들의 기억이 다소 상충되기도 한다. '목회자 자녀'의 아픔을 과감하게 이야기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심플

빌 하이벨스 | 규장 | 3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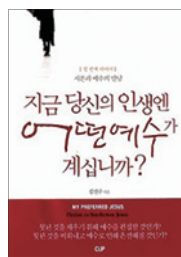
단순한 삶이란 일을 적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삶을 의미한다. 이 책에는 미국 대형교회 중 하나인 월로우크릭교회 담임목사 빌 하이벨스가 알려주는 영혼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훈련법이 담겨 있다.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리하는 방법들, 관점을 재조명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재점화하는 여정에 함께하도록 인도한다.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김건주 | CUP | 206쪽

'앎을 위한'이 아닌, '삶을 위한' 성경 읽기를 권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시몬과 예수의 만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 장면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을 돌아보게 한다. 성경 구절을 세세히 설명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는 여러 글과 음악, 사진들을 소재로 오늘 삶의 깊이 생각하도록 한다. 말씀의 행간과 여간을 읽어낼 수 있도록 풀어냈다.



예정

서우경 | 규장 | 240쪽

청년기 불교 경전 수만 권을 자비로 배포하며 주말에는 아이들에게 불법(佛法)을 가르치던 열성 불자(佛子)였던 저자는 31살의 어느 날, 영혼육이 죽음과도 같은 깊은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된 후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33살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현재 한국교회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유튜브에서 20만회 이상 조회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된 이야기.



REVIEW

양화진문화원, 안장된 선교사 및 가족들 생애 집대성

묘비 탁본과 묘비명, 안내도 함께 수록한 도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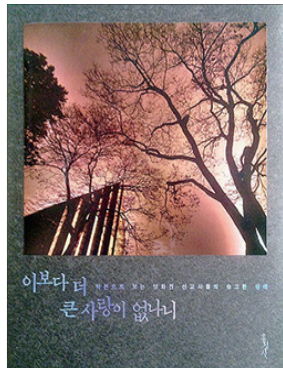
양화진문화원(원장 박흥식 박사)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안장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생애를 집대성한 책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탁본으로 보는 양화진 선교사들의 숭고한 생애)를 출간했다.

양화진문화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양화진 묘원 내 모든 비석을 탁본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양화진 묘원에는 총 417명이 묻혀 있고, 그 중 선교 관련자는 선교사 90명과 가족 55명 등 145명임을 확인했다.

책에서는 묘원 내 모든 안장자의 묘비 탁본을 간략한 생애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부록에는 묘원 참배시

휴대가 가능하도록 안내도를 첨부했고, 선교사들의 묘비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았다. 문화원 측은 "지금까지 양화진에 묻힌 이들을 소개하는 책은 간혹 있었지만, 안장된 모든 선교사의 묘비 탁본과 함께 묘비명을 정리해 수록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1장에서는 양화진 묘원의 간략한 역사와 안장된 이들의 현황을 개괄했고, 2장에서는 선교사 90명 전원과 이들을 한국 땅으로 이끈 부모와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선교사 23명의 생애를 함께 수록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양화진문화원 | 흥성사 | 440쪽

3장에서는 선교 기간 중 이 땅에 자녀를 양화진에 묻고도 사역에 헌

신하다 귀국한 선교사 28명의 이야기를 담았고, 4장에서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 발전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일반인 12명을 소개하고 있다.

양화진 묘원은 125년 전인 1890년 7월 28일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제중원 2대 원장이던 헤론이 소견해 묻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럽 5개국 영사들에 의해 관리되던 조성기(1890-1910년), 선교사들이 중심이 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관리하던 일제강점기(1910-1942), 해방 이후 방치기(1945-2000), 성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부활기(2000년 이

후)로 나눌 수 있다.

이 묘원은 선교사 묘비명으로도 유명했다. 특히 미 감리회 선교사인 헐버트(Homer B. Hulbert)와 캔들릭(Ruby R. Kendrick)의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I would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는 묘비명은 지금도 많은 이들을 숙연하게 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성화 특별 기획전

크리스천이라면 가정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 성화를 특별 할인판매 합니다. 교회 임직자들 선물용으로, 교회에 하나쯤은 꼭 비치하면 좋습니다.



성화특별기획전

- 36×18 - \$ 200
- 19×25 - \$ 150
- 27×19 - \$ 200
- 8×12 - \$ 70
- 6×8 - \$ 40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문의하세요
문의 기독교일보 T) 213-434-1170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스위치”

가족과 어머니의 기도, 주어진 삶을 희망의 눈으로 보게 해

선천적 심장병으로 태어난 저자는 너무 어린 나이에 받은 심장 수술의 후유증으로 실명하게 됐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와 가족들의 헌신으로 그 누구보다 밝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비판하거나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희망의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다.

네 살 때 피아노를 처음 만났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컴퓨터에 빠져 살았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와,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음악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청력과 남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고난 천재성이 음악과의 만남으로 빛을 발했다.

버클리음대에서 작곡과 프로듀싱을 복수 전공했으며 시각장애인으로서 선례가 없을 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명문대인 뉴욕대학에서 음악 기술과 영화음악을 전공했다.

그 후 글로벌 음반사인 EMI의 자선음반 제작에 참여했다. 타고난 성실함과 끈기,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스위치 김치국 | 두란노 | 216쪽

인정받아 현재 버클리음대에서 그와 같은 장애인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형제처럼 지내는 이들과 세로토닌을 설립해 다크멘터리,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며 우리를 만나고 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KBSTV 다크공감을 통해 처음 공개 되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그 후 방송에서 전하지 못한 그의 삶과 가족, 결혼, 신앙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돼 많은 감동을 더해 주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한계에 부딪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꿈과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힘을 줄 것이다.

또한 환경을 탓하기 보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 때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임을 가르쳐 준다.

현재 그는 미국 보스턴에서 사랑스런 아내 티파니, 안내견 페이지와 함께 살고 있다.

추천사를 쓴 소향은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김치국 교수의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길 권한다”고 했다.

오상아 기자

문서 통해 복음 전해 “어려움은 연합으로 극복하자”

기출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출판문화상 시상식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민병문 장로)가 24일 오후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제41회 정기총회, 제31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40주년 기념식, 3부 출판문화상 시상식, 4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40주년을 맞아 역대 회장들 대부분이 참석했다.

2부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한 민병문 회장은 “그 동안 한국 기독교 출판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매년 1천여 종이 넘는 양서를 출간하고 전 세계로 성경을 수백만 권씩 공급하고 있다”며 “이 귀한 사역들을 이어가는 우리 회원사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오늘날 다시 새로운 40년을 출발하는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강력한 요구에 저항하기보다, 책의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이 요구를 오히려 선도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독교 출판계는 하나로 뭉쳐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결코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이 문서선교의 길에서 다시 한 번 연합을 이뤄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이끌자”고 당부했다.

축사와 격려사도 이어졌다.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으로 마무리됐다. 창립·발전 유공자는 초대 회장 김재권 대표를 비롯, 3대 회장 이승하 회장(성광문화사), 6대 회장 박종구 대표(신광애), 8대 회장 여운학 회장(규장) 등이, 40주년 유공자는 13대 회장 이형규 대표(꿈나무출판사), 14대 회장 최대형 대표(은성출판사), 15대 회장 정형철 대표(아가페출판사), 16대 회장 박경진 대표(진흥) 등이 각각 수상했다.

이후 방주석 부회장 사회로 제31

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올해는 대상 없이 부문별 최우수·우수작이 나왔다. 지난해 30회 시상식에서는 박삼중 목사의 <교회생각(홍성사)>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작은 어린이 분야 국내 ‘믿음 튼튼 개넌 쑥쑥’ 시리즈(생명의말씀사·10권)와 국외 <와글와글 그림성경(토기장이)>, 청소년 분야 국내 <미소천사의 일기장(누가출판사)>과 국외 <달콤한 나의 집(꽃샘)>이다.

또 신앙일반 분야 국내 <밥보다 예수(홍성사)>와 국외 <팀 켈러의 일과 영성(두란노)>, 목회자료 분야 국내 <나눔과 함께(그리심)>와 국외 <세계 교회의 미래(IVP)>, 신학 분야 국내 <설교의 영광 설교의 부끄러움(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과 국외 <신학개론(CLC)>이다.

우수작은 어린이 분야 국내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CUP)>와 ‘처음 배우는 하나님·예수님·성령님’ 시리즈(겨자씨), 국외 <더러운 옷(주니어지평)>과 <성경인물 수사대(성서유니온)>, 청소년 분야 국내 <큰 나라(창조문예·전 2권)>와 <틴틴통독 40일(두란노)>, 국외 <부모 용서하기(규장)>이다.

또 신앙일반 분야 국내 <삼위일체 육아법(몽당연필)>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막의 신비(예영)>, 국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성서유니온)>, 목회자료 분야 국내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레서원)>과 <이 시대를 향한 설교학(한국장로교출판사)>, 국외 <살림을 위한 교육(SFC)>과 <성경 그대로 기도하기(규장)>, 신학 분야 국내 <판소리의 신학적 풍경(대한기독교서회)>과 <성령 그 위대한 힘(넥서스 CROSS)>, 국외 <성전신학(새물결플러스)>과 <다른 불(생명의말씀사)>이다.

정기총회도 함께 진행돼 민병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연임됐다.

이대웅 기자

“기부자의 7가지 얼굴”

고액 기부자를 ‘고액’ 이 아닌 ‘기부자’ 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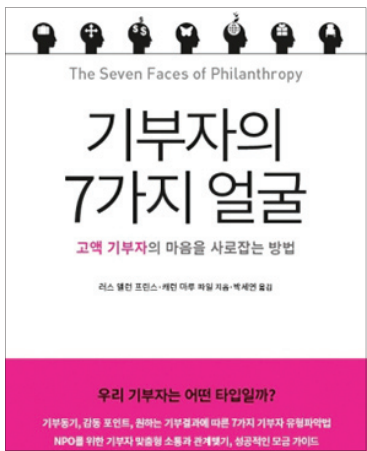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한국의 모금규모는 3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의 모금활동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고액기부’이다. 그 동안 소액기부가 꾸준히 확산된 데 비해 고액 기부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 고액기부자 개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액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비영리단체를 찾기 어렵다. 차라리 내 이름으로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호소한다.

고액 모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금 실무자라면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의 8번째 기부문화총서 <기부자의 7가지 얼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4년 발간된 이 책은 모금마케팅 분야의 고전이다. 자산관리 컨설팅기관 대표인 러스 앨런 프린스와 코네티컷대학 마케팅 부교



기부자의 7가지 얼굴 러스 앨런 프린스·캐런 마루 파일 박세연 옮김 | 나남 | 323쪽

수인 캐런 마루 파일은 미국의 고액기부자 218명을 조사한 뒤 유형을 분석했다.

공동체주의자·투자자·사교가·보은자·노블리스·신앙인·이타주의자 등의 7가지 기부자들은 각자의 동기에 따라 비영리단체 참여 방식이나 평가 기준, 기대치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기부를 끌어낼 수 있는 모금 제안서나 언어 표현, 프로그램, 소통 방식 등도 각각 다르다.

책의 가장 큰 강점은 고액기부자를 ‘고액’이 아닌 ‘기부자’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기부자들이 비영리의 중심적인 지지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는 기부자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이같은 분석들은 이후 모금선진국에서 기부자 이해의 기본모델로 자리잡았다.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 모금단체들은 이 책에 영향을 받아 유형별 기부자 조사와 그에 따른 모금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기부자의 7가지 얼굴>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기부문화총서 신간 출판을 기념해 고액기부 모금 관련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장세규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량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 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병 예방, 원인을 밝혀내서 상임연방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약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상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라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부어국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불고기 콩치구이 오모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떡볶이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돈가스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213-598-5552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ra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Tel. 323.737.2922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영어: 213.380.6868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윈현대 칼슨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기독교계 3.1운동 계승해 십자가 사랑으로 애국해야

3.1절 메시지 통해 “장로교인들이 애국·평화통일 앞장 서야” 강조



3.1운동 재현 모습

3.1절을 맞아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3.1운동의 교훈을 명심하며 애국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23일 ‘3.1절 메시지’를 통해 “900여만의 장로교인들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십자가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장총은 메시지에서 “3.1운동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존

엄성을 회복하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조화롭게 하나가 될 때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장총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젊은 세대와 노년층, 배운자와 배움이 적은 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하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

며 이런 십자가 사랑의 실천이 진실로 남북 통일을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장총은 또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반복하여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송고한 3.1정신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장총은 “당시 이화여고생이었던 유관순 열사와 같은 용기 있는 젊은이들을 배출하는 교육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우리의 자원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한장총은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대국화, 러시아의 핵 폭격기 시위, 그리고 북한의 핵 경량화 시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사적 과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3.1정신으로 다시 무장해 용감하게 대처하여야 하겠다”며 강인한 정신 무장을 주문했다.

장세규 기자

3.1운동 참여 기독교 대중의 자각으로 이어져

통합, 광복 70주년 세미나 개최



예정통합 광복 70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예정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광복 70주년 기념세미나가 ‘3.1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23일 오후 서울 중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채영남 목사(부총회장)의 설교로 드린 예배에 이어, 임희국·이치만(이상 장신대)·황홍렬(부산장신대) 교수의 발제와 강성열 교수(호남장신대)의 논찬, 김치성 목사(교육자원부 총무)의 정리 및 마침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임희국 교수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3.1운동의 평화사상’을 제목으로 첫 발표를 했다. 임 교수는 “기독교의 평화는 성경의 증언에 기초해 인간이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며 “예수의 평화는 물리력, 곧 군대의 힘으로 침묵해 해 조용한 세상을 만든 로마제국의 평화(Pax Romana)와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로 시작하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9절을 예로 든 임 교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가 정의의 바탕으로 각각 자유를 누리고, 수평적 평등 속에서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라는 말씀”이라며 “3.1운동 독립선언서가 추구한 동양평화론과 조화를 이룬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평화운동은 3.1운동 당시 한국의 독립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국제 정세 또한 크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며 “이로써 이 평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의 평화가 보다 더 절실한 올해 3.1절에, 우리는 하늘에서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평화를 기다리되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가 평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의로운 평화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3.1운동과 장로교의 역할’을 제목으로 발표한 이치만 교수는 “기독교계에 있어서도 3.1운동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전개됐다. 또한 기독교 학생 및 기독교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이처럼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독립운동 경험은 사회운동의 실천에서 다소 소외됐던 기독교 대중의 자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3.1운동에서 나타난 기독교계의 특징으로 정치적 현실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라며 “3.1운동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정치의식이 분화되어 나타났는데, 완전독립을 통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입장과 현실적 지배세력을 인정하면서 자치를 통한 점진적 독립국가 건설의 입장이 그것이다. 이는 향후 기독교 민족운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고 전했다.

끝으로 황홍렬 교수는 ‘3.1 정신과 한국교회의 평화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3.1운동의 평화사상은 민족의 독립과 자주가 동양평화 및 세계평화와 필수적으로 연계되며, 그 바탕에는 인화가 있다고 봤다”며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종교 간 연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교회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사랑의 통일, 북한 이탈주민 선교, 나눔을 통한 평화통일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앞서 채영남 목사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마태복음 5:13-16) 제목의 설교를 했다. 김진영 기자

담임목사의 세 가지 필수요소, 영성·능력·관계성

신학생 진로를 위한 “제1회 영성 컨퍼런스” 개최



“제 1회 영성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신학생 진로(進路 & 眞路)를 위한 ‘제1회 영성 컨퍼런스’가 23일-24일까지 안양제일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신학생들과 신대원생들이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또 한국교회의 미래상에 어떻게 대처하며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컨퍼런스 첫 강의를 전한 홍성욱 목사(안양제일교회 담임)는 목회자가 준비해야 할 것으로 ‘영성과 능력, 그리고 관계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먼저 영성에 대해 “나는 이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했

다. 홍 목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말씀·기도·예배·묵상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능력’에 대해서는 ‘설교’와 ‘리더십’ 두 가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목사는 “설교의 발전은 모방에서 온다”며 “자신의 영성과 맞는 몇 사람을 정해서 그들의 설교를 모방해서 많이 해 보라. 신학생 때, 신학서적을 보는 것보다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핵심은 예측력과 정보력”이라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정보를 수집하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미

리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리더십의 또 다른 핵심은 비전이다. 존 스토트는 ‘비전이란 인사이트(insight)와 포사이트(foresight)’라고 했는데, 인사이트란 내 안을 들여다 보는 능력이고 포사이트는 앞을 보는 능력이다”며 “즉 비전이란 나를 알고 앞을 보는 능력이다”고 했다.

세 번째 요소인 ‘관계성’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영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더라도 관계성이 떨어지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성을 교역자·교인·불신자 세 종류의 사람과 각각 잘 맺어야 한다고 했다. 홍 목사는 “먼저 교역자들과의 관계성에서 성공해야 한다”며 “담임목회자에게 인정받으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임목사는 여러 분들을 키워주기를 바란다. 목회자는 호감을 받으면 모든 것을 줄 분이다. 바른 목회 자세와 바른 예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

홍 목사는 마지막으로 “영성과 능력과 관계성은 어느 것 하나라도 없어서도 어느 것 하나만 우수해도 안 되고, 다 같이 발전해야 한다. 한 가지만 없어도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하석수 기자



굿네이버스는 기독교일보와 함께 저개발 국가의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을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들 100만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양제 한병과 약간의 식량이면 허무하게 끝나는 이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최수종 드림



당신의 나눔만이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후원문의 1-877-499-9898 www.goodneighbors.org

굿네이버스는 UN의 최고 고문기관으로써 1991년 한국인이 설립하여 전세계 32개국에서 구호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입니다.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